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마마스 순교자

마태오 제 12주일

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제 3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3조 부활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 찬양송 / 84, B 263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 I고린토 15:1~11 / 봉독서 220
- 복음경 : 마태오 19:16~26 / 115, B 5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 성 마마스 순교자

교회의 성인들 중에 많은 성인들은 그들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수호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9월 2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마마스 순교자(AD260~275)도 이러한 분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마마스 성인은 삶에서 동물들의 수호자와 같은 목동이었습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께서는 성 마마스 순교자에 대한 추모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목동, 마마스 성인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재물을 경이롭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떤 재물을 경

이롭게 생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재물을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갑시다. 양치기 목동은 위대하고 지혜로운 직업은 아닙니다. ... 하지만 성 마마스 순교자의 추도식은 그의 영적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존경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경이롭게 생각하지 말고 성인들의 덕을 경이롭게 생각합시다.



## 모두가 이해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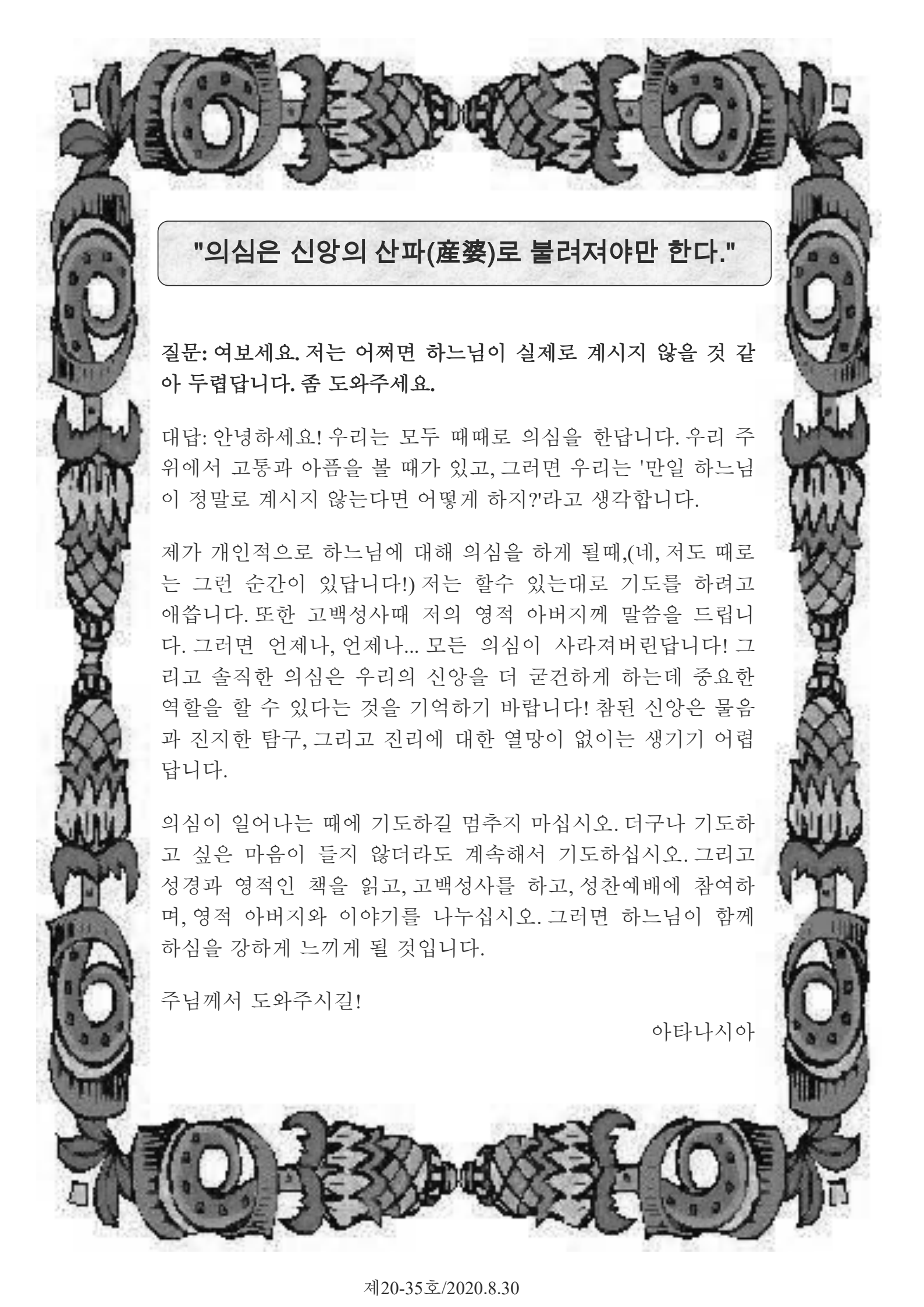
엘리 비젤(Elie Wiesel, 1928. 9. 30. ~ 2016.7.2.)은 유대인으로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10대였던 그는 학살당한 부모, 누이와 달리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밤’에서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어느 날 나치친위대는 유대인 남자 어른 2명과 소년 1명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희생자들 앞에서 퍼레이드하게 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죽었지만 소년은 30 분 이상 고통에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잡힌 동료 한 사람이 뒤에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내 안에서 '어디 있느냐고? 바로 여기 있다. 그들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 비젤은 이러한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사건 이후 믿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의 신실한 작가 프랑수아 모리악 (1885.10.11.~1970.9.1, 1952년 노벨 문학상 수상)이 그의 저서 ‘밤’의 프랑스어 판을 출간하면서 기자가 된 엘리 비젤과 인터뷰했고 그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교수형에 처한 아이의 얼굴에 나타난 천사의 슬픔을 여전히 눈에 간직하고 있는 그 젊은 기자(엘리)에게 어떤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긴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대해,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예수)에 대해 말할까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삶이란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인간의 시련 사이의 관계가 어린 시절의 믿음을 잃어버린 미해결의 신비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그에게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유대인 소년에게 했어야 할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를 안고 울면서 키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위의 사건은 우리의 대화 상대가 극심한 상처로 고통스러워 할 때 사랑의 언어 외에는 어떤 언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이유로 아나스타시오스 알바니아의 대주교도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의심은 신앙의 산파(産婆)로 불려져야만 한다."

질문: 여보세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대답: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때때로 의심을 한답니다. 우리 주위에서 고통과 아픔을 볼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때,(네, 저도 때로는 그런 순간이 있답니다!) 저는 할수 있는대로 기도를 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고백성사때 저의 영적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나, 언제나...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린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물음과 진지한 탐구,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때에 기도하길 멈추지 마십시오. 더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영적인 책을 읽고, 고백성사를 하고, 성찬예배에 참여하며, 영적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 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30일 축일을 맞이하는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 대교구

➡ 코라 수도원도 모스크로 전환되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성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한 데 이어 코라 수도원도 모스크로 전환하여 한 번 더 불명예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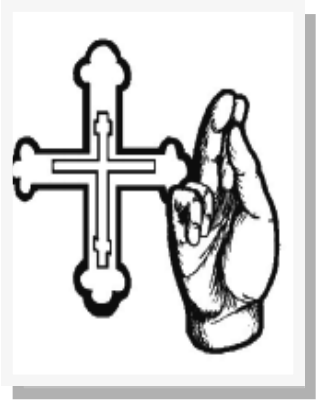
행동을 취했습니다. 유명한 코라 수도원(터키어로 Kariye Camii 또는 Kariye Müzesi)은 6세기부터 콘스탄티노플에 존재했던 그리스도교 수도원으로,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 모스크로 전환되었습니다. 1958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모스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라 수도원은 세계에 있는 비잔틴 예술 작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 성화들과 경이로운 벽화들이 보존된 유일무이한 문화유산입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성당 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성화는 바로 코라 수도원의 벽화를 본따 만든 사본입니다. 우리는 코라 수도원을 모스크로 전환하기로 한 터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세계총대주교청과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며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 취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서울에서 여름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처럼 전주 성모 안식 성당과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에서도 여름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늘님이 도와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아이들과 대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영적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매일 밤 10시 기도를 실천합시다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를 벗어나도록 매일 밤 10시에 15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함께 밤 10시에 드리는 기도를 실천하여 하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 수도원 블로그 시작합니다

한국 정교회 구세주 변모 수도원은 블로그를 통해 정교회 신앙과 영성 그리고 수도생활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에 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깊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는 영어, 러시아어, 그리스어로도 발행을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orthodoxmonasterykorea.org](http://orthodoxmonasterykorea.org)